

원칙을 지킨 경영,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엄기섭 대표는 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엄기섭 대표는 “일평생 살면서, 남에게 빚을 저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회사를 수십 년간 꾸려오면서 반대로 뒤통수를 맞은 적도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서,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왔다고 했다. 이는 선친이자 한진물산을 설립한 엄재우 대표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故 엄재우 대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선진 문물을 체득했다. 상당한 인텔리였던 그는 일찌감치 공업이 세계 시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을 했다. 일본 운수성 철도총국(현 JR)에 취업한 그는 여러 기술을 배웠다. 광복을 맞이해 국내로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던 그는 경력을 살려 부산 철도 정비창에서 근무했다.

주로 기계를 만지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의 여러 공구업체 대표와 만나곤 했다.故 엄재우 대표의 능력을 높이 샀던 그들은 “곧 한국도 농경사회를 벗어나 공업이 주요 산업이 될 텐데, 그땐 공구가 많이 필요하다”며 하나같이 사업을 하라고 권했다. “내가 돈이 어딴소”라고 반문했던故 엄재우 대표에게 그들은 “작게 사무소만 차리라”며 “당신을 믿으니 물건을 보낼 것”이라 약속했다.故 엄재우 대표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신뢰했던 것이다.

그렇게 설립한 회사는 너무도 잘됐다. 4년 정도 지나니故 엄재우 대표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아들인 엄기섭 대표를 불렀다. 섬유산업이 주를 이루던 당시, 서울에서 국내 굴지의 회사에 다니던 엄기섭 대표는 부친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와 함께했다.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했던 엄기섭 대표는

여러 나라를 쉽 없이 오가며 활로를 개척하며 한진물산이 도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주먹구구식으로 거래하던 공구 시장에서 정확한 표준가격 거래와 품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잡으려 노력했다.

엄기섭 대표의 수완으로 거래 품목은 눈에 띄게 늘었다. 한진물산의 주력 품목은 산업전반에 기초가 되는 절삭공구와 작업공구다. 대표적인 수입 품목은 일본 YAMAWA와 DOGYU, FUJIYA社 등의 다양한 공구로, 이를 독점 수입해 전국 도매상가에 공급한다. 이밖에 미국 및 대만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엄선했다 수입,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한진물산의 연 매출은 100억 원 규모이다. 규모만으로 공구 수입 업계 순위에서 손가락에 꼽히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의 사업가라면 누구나 겪었던 IMF 사태라는 큰 시련을 한진물산도 피할 순 없었다. 일본제 공구를 수입하다 보니 엔화의 급등으로 타격이 컸다. 거래할 때마다 적자였지만 납품가와 기한을 꼭 지켰다. 회사가 넘어갈 위기가 며칠마다 왔지만 버텼다.

이러자 소문이 났다. 거래하지도 않던 일본의 다수 업체가 찾아와 한진물산은 신뢰할 수 있다고 물건을 내밀었다. 얼마 안 가서 회사는 회복했다. 오히려 규모가 늘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그리 크지 않았다. 엄기섭 대표는 한진물산이 지켜온 철칙이 비결이라고 했다.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걸어온 것 말이다.

나눔의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

올해 초, 하루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자주 건강 진단을 받던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가, 그의 주치의를 만났다. 그런데 그의 표정과 말하는 느낌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서울아산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술은 일절 대지 않고, 담배도 멀리했기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엄기섭 대표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간단한 심장 시술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몸 상태는 그의 생각보다 나빴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달 가까운 긴 시간 병상에 누워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참 고마웠소. 죽을 뻔한 날 살린 것 아니오. 병상에서 일어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소”라고 말하는 엄기섭 대표는 서울아산병원의 발전을 위해 후원을 했다.

그동안 그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해 왔다. 모교인 동아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보육원 등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펼쳐왔다. 특히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끌어온 은강장학회는 전달한 장학금만 5억이 넘는 정도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못하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들은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직접 지은 쌀 한 자루, 고생해서 짜낸 들기름, 각종 산에서 캔 나물들을 가득 들고 찾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는데, 이젠 조금이라도 받는다. 무엇보다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물품들을 거절하기도 어렵거니와 받은 것에 보답하고픈 그들의 마음을 자신도 알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해온 기부를 멈추지 않고 더욱 사회에 나눠야겠다고 다짐한다.

자신이 해온 나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 치는 엄기섭 대표.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960년대 60불에서 3만 불이 됐어요. 이렇게 선진 사회를 빨리 이뤘습니다”라며 “그만큼 살기 좋아진 우리나라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 프레임 스튜디오



한진물산주의 사옥 전경.